

| 해양논단 |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

| 김주식 |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이순신 선양사업의 현황
- III.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자원의 가치
- IV.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사업의 현황
- V.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
- VI. 결론

I. 문제의 제기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이순신 동상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많았으며, 이 동상이 없는 학교가 발견되면 이상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파악되지만, 이 현상은 이순신만큼 숭앙된 우리나라의 역사 위인이 없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난중일기』, 『충민공계초』, 『충무공유사』 등과 같은 자료에 나타나

* 이 글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가 2018년 12월 6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제1회 '해양 리더의 길' 주제발표회 및 토크 콘서트」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는 이순신과의 유관지역¹⁾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국에 걸쳐 있다. 이 유관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지형에서 ㄴ자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대략적이지만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지역이 100여 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경상남도 지역도 96곳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11곳, 충청남도 8곳, 경기도 6곳, 서울 2곳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인지 몰라도 이순신의 선양활동과 관련 사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는 충청남도의 현충사관리소와 아산시가 주관하여 여러 행사를 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사업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최근에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백의종군로 탐방 행사 등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방치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 아직도 있다.

본고는 이순신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근래까지 진행되어온 선양사업을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호남지역의 이순신관련 자원의 현황과 호남 지역이 지금까지 실시해온 이순신관련 사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고찰들은 이순신관련 사업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1) 여기에서 이순신과의 유관지역은 이순신이 잠시 머무르거나 숙박을 한 곳으로 일기나 장계에 표기되어 있는 지명들을 뜻한다.

II. 이순신 선양사업의 현황

임진왜란이 종료된 직후 즉 17세기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져 온 선양 활동이나 현창 활동²⁾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³⁾과 같다.

<표 1> 이순신 선양 및 현창 활동

내 용	세 기			일제 강점기	연 대						계	
	17	18	19		45-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00		01- 09
공신	4	2										6
사당	12	9	11	3	5	2	3	2	3			50
비/탑	8	5	3	4	5	9		3	8	2		47
문화 유적	2		2	3	1	5	6	7	3	3	1	33
선박					1	1		2	1	1	4	10
교육					2					1		3
정부 기구							1		1	1		3
단체/ 연구소				1	1		1			1	4	9
계	26	16	16	11	15	17	11	15	16	9	9	161

이 표를 보면, 첫째 사당, 비/탑, 문화유적, 선박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물에 대한 활동이나 사업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형물은 임진왜란이후 300년간의 조선시대(52회)보다 광복 이후 65년간의 현대(78회)에 이르러서 더 많이 설치되거나 증·보수되

2)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선양(宣揚)은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하는 것을 그리고 현창(顯彰)은 밝게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3) 이 표는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평가와 현창(顯彰)”, 『海洋戰略』, 제152호, 2011. 12, 43-44쪽, <표 7>을 요약한 것이다.

었으며, 일제강점기(10회)에도 실시되었다. 셋째, 광복이후에 이 유형물 활동과 사업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대마다 거의 10회 이상 비슷하게 나타나며, 광복 직후인 1940년대와 군사정권이 종료된 1990년대에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0년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010년대 후반에 다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선박의 경우에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10여 회 이상 이루어져 왔다.

교육, 정부기구,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나타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해군 장병의 이순신유적 참배 정례화와 사관생도 교과과정에 충무공정신 교과목 신설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기구 분야에서는 통영읍의 충무시와 통영시로의 연이은 개명,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실행과 현충사관리소의 신설, 해군의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과 충무공수련원 설립 등이 있었다. 단체와 연구소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연구회가 발족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꾸준히 신설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 민간 주도로 연구소나 연구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사당과 비/탑의 건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복 이후에는 비/탑의 건립, 문화유적, 사당의 순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고, 그밖에도 활동 영역도 다양해졌다. 1950년대에는 동상이 많이 세워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현충사의 성역화사업과 정부 주도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사당, 비/탑의 건립, 기념공원 등이 신설되었다. 2000년대에는 사당과 비/탑의 건립이 사라지고 그 대신 이순신관련 선박이 많이 건조되고 민간 연구소가 많이 창설되었다. 2010년대에는 지자체와 민간인의 활동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활동과 하드웨어에 대한 활동이 주류였을 뿐이고 그 대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유형물을 활용하는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태부족이라는 결함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III.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자원의 가치

호남지역의 이순신 관련 유적 수는 전라남도 112곳⁴⁾과 전라북도 3곳으로 총 115개이다. 이순신관련 유적이 존재하는 곳은 전라남도의 총 21개 시군 중 17곳이며, 이는 약 80%에 해당한다. 유적이 10개 이상인 시군은 4곳(보성·여수·고흥·완도)이며, 이 4곳에 있는 유적 수가 전라남도 전체 유적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총 14개 시군 중에서 2곳에만 이순신관련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다.⁵⁾ 이순신 유관 지역이 8곳(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인데, 그중에서 2곳에만 유적이 있다.

유적은 이순신관련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원이며, 이순신 관련 사업이 이 유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순신과 관련된 사업은 선양 사업이나 현창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선양과 현창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목적 하에 지자체나 유관단체가 각종 축제, 건축시설사업, 공원 조성, 문화예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집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적들의 가치는 이순신관련 사업에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4) 전라남도의 이순신관련 유적 수는 전라남도·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활용 방안』, 제2권 : 유적·유물분야(2016), 8쪽의 표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유적 현황>에서 인용하였다.

5) 정읍시에는 1836년에 건립된 유애사(有愛祠)와 1949-63년에 건립된 충렬사(忠烈祠)가 있다. 남원시에는 2017년에 복원된 백의종군로 53km가 있다.

〈표 2〉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유적 수

도명	시군별	유적 수	시군별	유적 수
전라남도	목포시	3	화순군	1
	여수시	17	장흥군	1
	순천시	9	강진군	1
	나주시	1	해남군	8
	광양시	0	영암군	2
	담양군	0	무안군	4
	곡성군	4	함평군	0
	구례군	8	영광군	1
	고흥군	14	장성군	0
	보성군	18	완도군	12
	진도군	4		
계	112			
전라북도	정읍시	2	남원시	1
	계	3		

IV. 이순신 관련 사업의 현황

호남지역이 추진해온 이순신관련 사업은 전라남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⁶⁾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전라북도의 사업은 정읍에서 매년 4월 28일 거행되는 '이충무공탄신제'와 남원시가 2017년부터 연간 1회씩 거행하는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걷기행사' 뿐이다.

1. 지방정부 추진 사업

지역	사업 내용(연도)
여수	거북선축제(67-현재), 진남제 보존회 설립(77), 하멜과 거북선축제전시관(2012), 선소 복원(85), 이순신 밥상 개발(2010), 전라좌수영 복원사업(15-19), 건물 8동(진남관 해체 복원사업 포함)
해남	국민관광지 지정(86), 명량대첩기념공원 건립(91),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2003-현재), 우수영권역 종합정비, 우수영권역 역사관광촌 건립, 원형거북선크루즈사업(2006-11), 명량대첩축제(2005-현재, 해남·진도), 이순신장군 전승대첩 승전광장 조성(2012)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2005-07)
고흥	명량이순신광장 마케팅사업(2014), 이순신장군 전승탐방사업,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 백의중군로 건설, 조선수군 체험장, 절이도해전 기념관 건립, 1관4포 조성복원사업, 학술대회, 충무공난중일기 테마여행
목포	수군문화제(2017) : 충무공탄신제, 학술대회, 공연, 전시회, 수군 프로그램, 사진촬영대회, 백일장대회, 개신장군 수군행진, 고태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2012)

2. 전라남도 추진 사업

- * 이순신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2017-현재, 전남)⁷⁾ : 13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장흥, 해남, 진도, 완도, 고흥, 강진, 보성, 영광)
 - 기간 : 2017-23년 7개년 계획
 - 예산 : 4717억원(2018년 7267억원, 2019년 2조 0392억원)
 - 내용 : 34개 사업(콘텐츠활용·선양 4, 관광문화사업 21, 문화유산 복원·정비 9)

7) 전라남도 문화지원과, 『이순신호국관광벨트사업』(2018, 12, 6), 4-5쪽; 유영광(전남 문화지원과장), “이순신과 호남백성의 위대한 여정 :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한반도 서남해역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이순신 구국의 향로』, 2019년 민·학·관·군 합동세미나, 국립목포대학교 해군사관학부(2019. 11. 8), 49-59쪽.

- 지방정부 사업

지역	주요 내용
도청(4)	국립이순신총의센터 구축, 이순신테마극 공연, 호국벨트콘텐츠 개발, 전남이순신호텔 구축
여수(6)	고하도역사유적공원 조성, 창작콘텐츠개발, 선소유적 거북선테마공원 조성,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 방답진성 복원, 석보 정비
순천(2)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정유재란 전적비 복원
광양(2)	의병창 역사유적지 명소화, 이순신 호국항쟁 현장
곡성(1)	능파설산역사공원
고흥(6)	절이도역사체험파크, 1관4포이순신 순시길 조성, 조명연합수군해상기 지역사공원 조성, 의병(승)장 역사테마파크 조성, 의(승)병장 활동지역사탐방로 조성, 이순신장군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보성(2)	의항의 도시 보성의 의병길 조성, 군영구미 관광지 조성
장흥(3)	호국영웅역사테마파크 조성, 회령진성 복원정비, 회령포 해군기지 복원
해남(1)	울돌목체험형관광명소화 조성
강진(1)	전라병영성 복원
완도(2)	모당도 이춤공기념공원 조성, 가리포진 자원화
신안(1)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지화
영광(1)	법성진성 복원정비

3.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2018, 전남·전북)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 내용은 탐방로 사업, 기념관 건립, 아프파크 건립 등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학술대회, 문화사업, 공연, 복원 등 훨씬 더 다양하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전라북도도 함께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순신관련 사업이 약간이나마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 이순신 관련 사업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 이순신 관련 사업은 여수와 해남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업이 확산된 이유는 의사소통 도구와 수단의 발전, 소설과 드라마 및 영화의 주제로 이순신의 높은 인기와 그에 따른 대중의 인식 변화 덕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⁸⁾

2) 도 단위의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에 ‘이순신 문화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2018년에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⁹⁾ 이처럼 소규모 지자체별로 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광역 자치체의 추진이 늦게 시작된 것은 이순신의 활동 지역에 대해 전라도 해역과 지명 및 인력을 먼저 연상하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이유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순신관련 지역 중 정확한 지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명량해전을 치른 후 잠시 건너가 있었던 우수영 반대편 포구와 보화도에 임시 통제영을 설치하기 전 머물렀던 안편도 등의 실제 위치를 들 수 있다.

4) 이순신 관련 사업이 유적 복원, 기념물과 사당 건립, 공원 조성 등 건축시설분야의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좌수영의 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좌수영이 삼도수군통제영을 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¹⁰⁾ 그래서 전라좌수영이 임란 당시 조선 수군 활동의 중심지이자 이순신의 본영이고 그 대신 전라우수영은 보조 역할을 했다

8) 그 예로 『불멸의 이순신』(2004. 9-05, 6, KBS 104부작), 『정비록』(2015. 2-8, KBS 50부작), 『임진왜란 1592』(2016. 9, KBS 5부작)이라는 드라마들이 방영되었는데, 『불멸의 이순신』은 33.1%의 시청률을 보였다. 또한 영화 『명량』(2014, 김한민 감독, 최민식 주연)은 17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아 한국 영화사상 최대의 관객 수치를 기록했다. 2001년도에 출판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2015년에 이미 100만부 이상 팔렸다.

9) 경상남도도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삼도수군통제영 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이순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10) 이순신이 『난중일기』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이후 좌수영을 ‘영(營)’으로 한산도를 ‘진(陣)’으로 표현한 사례가 많다.

고 볼 수 있음에도, 전라우수영의 복원사업이 전라좌수영 복원사업보다 12년 먼저 추진되어 왔다.

5) 전라좌수영의 복원은 성곽과 관아건물 위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런데 수군과 육군의 병영이나 진(鎭)의 차이는 선창(船倉)과 선소(船所)의 존재 여부였다. 나루나 부두에 선박을 정박시키는 선소와 각종 선구(船具), 장비, 보급품 등을 넣어두어야 할 선창은 수군 병영과 수군진에게 필수 시설이었던 것이다.

6) 여수의 선소 유적지에도 선가(船架)와 선재 야적장(船材 野積場)이 없다. 원래 선박은 육지의 선가 위에서 건조되어 진수대를 통해 해상에 띄운다. 또한 선박을 수리할 경우나 선체에 해충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훈연(燻煙) 작업을 할 때에도 상가하여 수리했다가 다시 해상에 띄우는 경우가 많다. 군용 선박이나 민간 선박은 모두 이러한 작업 절차를 따랐다. 또한 선박을 건조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목재와 철재의 야적장도 선소의 필수 시설이었다.

7) 함선의 복원 사업이 거북선과 판옥선 위주로만 진행되어 왔다. 전라남도의 여러 기념관이나 전시관에는 이 두 종류의 함선 모형이나 실물 크기의 복원선이 전시되어 있다. 일기와 장계에 나타나는 함선 유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함선에만 시선이 몰려 있어 임진왜란 당시 함선의 종류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주력함이 거북선이었고 많은 척수가 건조되어 운영되었다고 잘못알고 있는 국민도 많다.

8) 각종 사업이 육지 사업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이순신의 주요 활동 영역이 해상이었음에도 바다가 부각되지 못하고 해안, 진성과 건물, 공원, 사당, 기념비 위주로 추진되어 다른 역사위인들과의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9)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물론 복원, 건립, 조성된 각종 건물, 공원,

기념물도 그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다. 주로 교육 목적의 참배와 체험지, 문화 사업으로서 축제 개최, 관광 명소로서의 관광지 등으로만 이용되어 왔다.

10) 이순신 관련 사업은 대체로 아직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콘텐츠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뮤지컬이 창작되었으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순신관련 상품 개발도 거의 없다.¹¹⁾

11) 이미 개발된 상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없는 것이 나올 정도이다.

12) 전라북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극히 적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기 직전 1589년 12월부터 1591년 1월까지 14개월간 정읍현감 겸 태인현감의 직책을 수행했으며, 여산-삼례-전주-임실-남원을 잇는 길이 백의중군 부임로에 포함되어 있었고,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함대가 북상하여 잠시 후퇴할 때 1597년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2일간 고군산도에 정박하여 주둔했으며, 1593년 12월 광해군이 주재하여 과거를 시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군은 수군진에서 시험보게 해달라고 이순신이 요청하여 조정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¹²⁾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제대로 활용한 적이 거의 없으며, 전남의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순신관련 혹은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와 자원을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1) 경상남도에서는 2009년 7월 77가지의 음식을 선정하고 이를 9가지 밥상으로 복원하여 '이순신밥상'을 개발하고 특허를 냈으며, 함양군에서는 2008년에 '생 이순신막걸리 1592'를 개발하였다.

12) 또한 1593년 12월 전주에서 광해군의 주도로 전시 과거(별시)가 시행되었다. 전주시는 2018년부터 '1593 전주 별시(別試)'를 재현하고 있다.

V. 호남지역 이순신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

일기나 장계 혹은 전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면, 8가지(의례의식, 유적유물, 함선, 해전지, 향로, 육로, 상품, 의료)로 나눌 수 있다.

1. 의례의식

1) 근거

- 매월 초하루 : 망궐례(望闕禮)
- 93. 2/5 : 독제(燹祭)
- 93. 2/6 : 동트기 전에 첫 나발을 불고, 날이 밝을 무렵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발을 불고 나서 배를 풀고 돛을 달음(四更初吹 平明二吹三吹 放船掛帆)
- 93. 2/9 : 첫 나발을 불고 두 번째 나발을 불고 나서 다시 천기를 본즉 비가 내릴 것 같아 떠날 것을 그만두었다. 종일토록 큰비가 와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지 않았다(初吹二吹 庚觀日勢 則多有雨徵 故不發 大雨終日 仍留不發)
- 93. 2/20 : 호각을 불고 초요기를 세워 전투를 중지시킴(卽令角立招搖止戰)
- 94. 4/3 : 여제(厲祭)

2) 키워드 : 망궐례, 독제, 여제, 출항의식, 전투중지신호

3) 활용 방안

- 축제나 행사시 망궐례, 독제, 여제의 재현

- 출항의식과 전투중지신호 등 각종 수군 의식을 수조(水操) 절차와 혼합하여 함대 출정의식과 해전 절차를 재현
- ‘임진왜란 전사·순국자 합동 위령제(진혼제)’나 ‘임진왜란 수군 전사·순국자 합동 위령제(진혼제)’를 매년 개최
 - 삼도수군에 포함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와 공동 주최
 - 정부에서 총리나 대통령 참석 유도
 - 개최일자는 임진왜란 발발일(4월 13일), 노량해전 발발일(11월 19일), 종전일(12월 16일) 중 택일
 - 개최지는 본영인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2. 유적유물

1) 근거

- 일기에 전라좌수영이 ‘영(營)’으로 한산도가 ‘진(陣)’으로 표기
- 이순신의 공식 직함이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 92. 2/8 : 동헌 뜰에 화대 돌기등을 세움(東軒庭 立石柱火臺)
- 92. 2/3 : 화대석 4개를 실어올림(火臺石四箇輪上)
- 92. 2/4 : 서문 해자구덩이(西門垓坑)
- 92. 2/8 : 동헌 뜰에 화대 돌기등을 세움(東軒庭 立石柱火臺)
- 92. 2/15 : 석수들이 새로 쌓은 포구 구덩이가 너무 많이 무너졌으므로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함(石手等以新築浦坑多致頽落 決罪 使之史築)
- 93. 4/12 : 노대석(路臺石)
- 92. 4/19 : 품방에 해자 파고 쇠사슬 구멍 뚫는 일로 아침에 군관을 보냄(品防掘鑿事 定送軍官)

- 97. 8/19 : 회령포 함대(12척) 인수
- 2) 키워드 : 전라좌수영, 삼도수군통제영, 화대, 노대석, 해자, 포구, 수군재건지, 함선
- 3) 활용 방안
 -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 선소와 선창을 포함하여 원형대로 복원
 - 토지와 건물의 매년 구입으로 순차적 장기 복원
 - 화대와 화대석으로 일부 조명
 - 축제 장소, 참배지, 관광지, 교육장소, 조선 함대의 출동의식 재현지 등으로 활용
 - 선소와 선창
 - 좌수영의 선소와 선창은 선가(船架), 선목(船木) 야적장, 굴강(掘江)을 포함하여 원형대로 복원
 - 광양 선소는 보완
 - 복원 함선 해상 전시장, 조선함대 출동 체험지, 함선 신호 및 의식 체험지, 교육장소, 관광지 등으로 활용
 - 회령포
 - 수군 재건지의 기념관, 기념물 건립
 - 전선 12척 복원 해상 전시
 - 교육 및 관광지로 활용
 - 고음천
 - 모친 거주지 복원 및 주변 정비
 - 효행 교육장소, 참배지, 관광지 등으로 활용

3. 함선

1) 근거

- 일기에 기록된 함선의 유형 : 18종 이상
 - 지휘선, 대장선, 전선, 병선, 판옥선, 거북선, 사후선, 협선, 탐후선, 수도선, 정찰선, 좌별도선, 경강선, 복병선, 천자선, 순환선, 침입선, 경완선 등

2) 키워드 : 함선 유형 18종

3) 활용 방안 :

- 기록에 나타나는 함선 유형을 연구하여 유형을 확정
- 유형별로 함선을 복원 및 전시
- 항해, 해상 행정 연락, 정보 수집, 보급 등의 활동 함선 체험 수단으로 활용
- 유형별 선박 모형의 개발로 상품화

4. 해전지

1) 근거

- 절이도 해전 (98. 7/24)
- 장도 해전 (98. 8/28)
- 벽파진 해전 (98. 9/7)
- 감보도 해전 (98. 9/9)
- 명량 해전 (98. 9/16)
- 광양만 해전 (9/21, 22, 10/2, 3, 4)

2) 키워드 : 해전지 6곳 (절이도·장도·벽파진·감보도·명량·광양만)

3) 활용 방안

- 해전 기념물, 기념관 설치
- 해상에 기념물 설치
- 해전 상황 시각 프로그램 개발(AR/VR)복수
- 교육지, 참배지, 답사지, 관광지로 활용
- 해전지 연계 해상 답사 프로그램 운영

5. 향로

1) 근거

- 모친 방문 향로 : 좌수영-고음천 (94. 1/11-12, 96. 1/1, 윤8/11—13, 9/27-28)
- 평시 예하부대 종합순시로 (92. 2/19-27 9일간 14개 지명)
- 좌수영-한산도 전진기지 왕래향로 (94. 1/17-19, 96. 1/3-4)
- 전시 출동 향로
 - 92년 1차 : 5/4-9 (해전 : 옥포, 합포, 적진포)
2차 : 5/29-6/10 (해전 : 사천, 당포, 당항포, 울포)
 - 3차 : 7/6-13 (해전 : 한산도, 안골포)
 - 4차 : 8/24-9/2 (해전 : 화준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 초량, 부산포)
- 93년 1차 - 2/6-3/10 (해전 : 용천용포 8회)
2차 - 7/3-5 (해전 : 견내량)
- 94년 1차 - 3/3-7 (해전 : 진해, 저도, 어선포, 시곳포, 당항포, 흥도)
2차 - 8/13-20 (해전 : 춘원포)
3차 : 9/27-10/8 (해전 : 장문포, 영등포 6회)

- 98. 9/15-11/19 (해전 : 광양만, 노량)
 - 전시 체찰사 동행 순시로
 - 95. 8/20-24 : 4일간 진주
 - 95. 12/16-19 : 4일간 삼천진
 - 96. 8/26-윤8/1 : 6일간 사천
 - 후퇴 항로
 - 1차 : 97. 8/19-9/15 회령포-우수영 6개 지명(26일간)
 - 2차 : 97. 9/16-10/2 우수영- 고군산도 8개 지명(17일간)
 - 전진 항로
 - 97. 10/3-10/29 고군산도-보화도 6개 지명(26일간)
- 2) 키워드 : 모친 방문 항로, 평시 예하부대 종합순시로, 전시 체찰사 동행 순시 항로, 좌수영-한산도 전진기지 왕래항로, 전시 출동 항로, 후퇴 항로, 전진 항로
- 3) 활용 방안
- 모친 방문 항로
 - 효행항로로 설정, 개발
 - 청소년 교육용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성인용 효행항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평시 예하부대 종합순시로, 좌수영-한산도 전진기지 왕래항로, 전시 체찰사 동행 순시 항로, 전시 출동 항로, 후퇴 항로, 전진 항로
 - 청소년 체험답사 프로그램
 -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
 - 성인용 해상 체험 답사 프로그램
 - 해상 관광 프로그램 (경유지 향토음식 연계)
 - 요트 혹은 수영 대회

- 장병 및 함정의 해상 체험과 답사

6. 육로

1) 근거

- 평시 예하부대 종합순시로 : 92. 2/19-27 14개 지명(9일간)
- 전시 체찰사 동행 순시로 : 96. 윤8/14-9/25 전라도 38개 지명
(40일간)
- 백의종군지 부임로 : 97. 4/1-18 한성-본가, 4/9-6/4 본가-모여곡
- 재임명 시 전선 순시로 : 97. 8/3-18 정성-회령포 14개 지명(16
일간)

- 2) 키워드 : 평시 예하부대 종합순시로, 전시 체찰사 동행 순시로,
백의종군 부임로, 재임명시 전선 순시로

3) 활용 방안

- 평시 예하부대 종합순시로, 전시 체찰사 동행 순시로, 재임명
시 전선 순시로
 - 장병 행군로
 - 청소년 호국 유적지 답사
 -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답사 과정 포함
- 백의종군 부임로
 - 행군로 복원 및 정비
 - 장병 행군로
 - 청소년 호국 유적지 답사
 -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답사 과정 포함
 - 일반인 체험 답사 프로그램
 - 구간별 트래킹 코스 개발

7. 상품

1) 근거

- 무기(총통 제외)

- 92. 2/13 : 크고 작은 살대 100개(箭竹大中百箇)
- 92. 6/2 : 대승자통통, 소승자총통, 편전(大中勝字銃筒片箭)
- 92. 2/16 장전, 편전용 화살대(長片竹)
- 93. 5/12 : 흑각궁(黑角弓), 후시(幟矢)
- 93. 5/27 : 화전(火箭)
- 94. 2/5 : 아침에 군기사에서 받아온 흑각궁 1백장을 날날이 세어 수결, 화피궁 89장도 계산하여 수결(朝軍器等受來黑角一百張 計數著署 樺皮 八十九張 亦著署圖)
- 95. 7. 2 : 철전 5순, 편전 3순
- 95. 7. 4 : 흑각궁
- 95. 7/12 : 철전 5순
- 95. 7/13 : 철전 2순
- 95. 7/20 : 철전 4순
- 96. 2/12 : 아침에 살대 50개를 경상수사에게 보냄(朝箭竹五十送于慶尙水使處)
- 96. 2/15 : 아침에 화살대를 골라 큰 것 111개와 그 다음치 154개를 옥지에게 내줌(朝箭竹擇出大竹百一十一介 次竹百五十四介 玉只受)
- 96. 3/34 : 현 활집 중 배로 만든 것이 8개, 무명으로 만든 것이 2개였는데, 그 중 활집 한 개를 고쳐 만들려고 감을 내줌(舊弓家布八綿二張 弓家 一改洗作次出給)
- 96. 5/24 : 박옥, 옥지, 무재 등이 살대 150개를 처음 만들

(朴玉玉只武才等箭竹一百五十介始造)

- 96. 5/25 : 무재 등이 만든 화살은 흰굽에 톱질 넣은 것 1,000개, 흰 굽이 그대로 있는 것 870개(武才等白蹄引鉅者千 白蹄在者八百七十介)
- 96. 6/5 : 아침 박옥, 무재, 옥지 등이 연습용 화살 150개를 만들어 바침(朝 朴玉武才玉只等 造候箭 一百五十介 納)
- 96. 6/25 : 철전 오순, 편전 3순, 보통화살(候) 5순
- 96. 6/26 : 철전 5순, 편전 5순
- 96. 6/27 : 철전 5순, 편전 3순, 보통화살 7순
- 96. 6/29 : 철전, 편전, 보통화살 도합 18순
- 96. 7/28 : 철전 36분, 편전 60분, 보통화살 26분, 계 123분
- 96. 8/3 : 흑각궁
- 97. 8/8(I) : 장편전
- 돛베
 - 92. 2/8 : 거북선 돛베 29필(龜船帆布二十九疋)
 - 92. 4/11 : 비로소 돛베를 만듦(始製布帆)
- 해산물
 - 92. 2/1 : 마침 망천 안에 피라미떼가 몰려 들어와 그물을 쳐 2천여 마리를 잡음(時水場內鱈魚雲集 張網獲二千餘箇)
 - 94. 3/23 : 견내량이 미역 53동(530가리)을 따옴(見乃梁甘藷五十三同採來)
 - 94. 3/24 : 미역 60동(600가리)을 따옴(甘藷六十同採來)
 - 95. 2/19 : 송한련이 와서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고 함(宋漢連來言 捉魚買軍糧云)

- 95. 5/21 : 포어, 소어, 젓갈 어란쪽들을 어머님께 보냄
(鮑魚及蘇魚鹽卵片送于天只前)
- 95. 11/21 : 이날 저녁 청어 13,240두름을 곡식과 바꿔 사려고
이종호가 받아감(是夕 碧魚一萬三千二百四十級 質
穀事 李宗浩受去)
- 96. 1/4 : 송한련 등이 와서 청어 천여두름을 잡아 왔는데, 내
가 간 동안 잡은 것이 모두 1,800여 두름이나 되었
다고 한다(宋漢連等云 碧魚千餘級捉掛 大槩行次後所
捉 一千八百餘級云)
- 96. 1/6 : 오수가 청어 1,310두름, 박춘양이 787두름을 바치고,
하천수가 받아다 가 말리기로 함. 황득중은 202두
름을 받침(吳壽(水)碧魚一千三百十級 朴春陽七 百八
十七級納 河天壽逢乾 黃得中二百二冬音納)
- 96. 1/9 : 오수가 잡은 청어 360두름을 하천수가 실러 감
(吳水所捉碧魚三百六十級 河天壽載去)
- 96. 2/6 : 송한련이 승어를 잡아갖고 왔기에 같이 먹었음
(宋漢連捉秀魚而來 同共破)
- 96. 3/24 : 새벽에 미역을 따러 나갔음(曉 採藷出去)
- 96. 5/16 : 송한련 형제가 물고기를 잡아옴(宋漢連兄弟捉魚而來)
- 농산물
 - 94. 1/17 : 원수사 군관 양밀이 제주관관의 편지와 말안장, 해
산물, 꿀, 유자 따위를 보냈기에 곧 어머님께 보냄
(故捧招元水軍官梁密持濟判官簡與馬 粧及海産柑橘
及柚子 卽送天只前)
 - 94. 8/19 : 칙 60동을 껌(採葛六十同)
 - 94. 10/8 : 흥도에서 띠 260동을 뱀(甯島刈茅二百六十同)

- 95. 9/17 : 유자 30개를 영의정 유성룡에게 보냄(柚子三十箇 送于首台)
- 95. 10/25 : 띠를 베어 오도록 군졸 80명을 보냄(以刈茅事 卒 軍八十名出去)
- 95. 11/6 : 띠 400동과 칩 100동을 실어옴(刈茅四百同 生葛一 百同載來)
- 96. 2/8 : 흥양 둔전에서 추수한 벼 352석을 받아들임 (興陽屯租三百五十二石納上)
- 96. 2/11 : 보성에서 군량 내는 일을 맡은 임찬이 소금 50섬 을 실러 감(寶城繼饋有司林瓚 鹽五十石載去)
- 96. 2/23 : 아침을 먹은 후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다시 작 석하여 새로 지은 창고에 쌓은 것이 167섬, 줄은 것이 48석이다(朝食出坐 屯租改正 新庫 入積 壹百 六十七石 流數四十八石)
- 96. 2/24 : 식후에 나가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고쳐 작성하 는 것을 감독했음.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다시 작성한 결과 창고에 들여쌓은 것이 170여 섬이고, 줄은 것이 30여섬이다(食後出坐 監屯租改正 屯租改 正 之數 百七十石入庫 流數三十石)
- 96. 2/26 : 둔전에서 걷어들인 벼 230섬을 다시 작성한 수가 198섬이고, 줄은 것이 32섬이라 함(屯租二百三十石 改正一百九十八石 縮數三十二石云)
- 96. 2/27 : 둔전에서 걷어들인 벼 220여섬을 고쳐 적석한 결 과 줄은 것이 여러 섬이었음(屯租二百二十石 改正 縮數石)
- 96. 6/1 : 윤연이 자기 포구로 돌아간다가에 동야장의 종자콩

이 부족하거든 김덕록에게서 가져가도록 하라고
체지를 서주어 보냄(尹連往其浦云 故 道陽場太種不
足 則金德祿處太種取去事 帖送)

- 96. 8/8 : 의능이 삼마 120근을 가져다 바침(宜能生麻 百二十
斤來納)
- 96. 8/9 : 아침에 수인에게서 삼마 230근을 받아들임. 하동에
종이를 가공해달라고 도련지 20권, 주지32권, 장지
31권을 김응겸과 박인수에 게 주어보냄(朝奉守仁生
麻二百三十近 河東改擣紙擣鍊二十卷注紙三十二 卷狀
紙三十一卷 令金應謙郭彥水等授送)
- 96. 8/19 : 아침에 송한련에게 그물을 만들라고 삼마 40근을
보냄(朝 宋漢連生麻四十斤 造網次給送)
- 97. 10/20(II) : 김종려를 소음도등 13개 섬에 있는 염장의 감
자도감검으로 정해 보냄(金宗麗 則所音島等十
三島鹽場 監賁都監檢 差定)
- 97. 10/28(II) : 염장의 도서원(鹽場都書員)

- 음식

- 93. 3/8 : 어란 만호가 쇠고기로 만든 음식 두어 가지를 보내
옴(於蘭亦送桃林數物)
- 93. 5/17 : 고성원이 추로와 쇠고기 음식 한 꼬치와 꿀통을 보
냄(固城倅送軍官來問 且致秋露與桃林一枝及蜂筒)
- 94. 4/3 : 삼도 군사들에게 술 1,080동이를 먹임(三道戰軍饋酒
一千八十盆)
- 95. 9/9 : 전라우수영 군사들에게 떡 한 섬을 나눠줌(而營軍士
則分餅一石)
- 96. 8/19 :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 우후를 불러 상화 떡을 만

들어 같이 먹음(晚 兩助防及忠淸虞候 招致而作床花 同之)

- 97. 8/21(I) : 날이 채 새기 전에 광란이 일어 몹시 앓았음. 차
게 해서 그런가 싶어 소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깨어나지 못할 뻔함(未曉 得霍 亂重痛 而觸
冷爲意 飲燒酒 有頃不省人事)
- 97. 8/9(II) : 점심 후 길을 떠나 10리쯤 오니 늙은이들이 늘어서서
다투어 술병을 가져다 바치는데 받지 않은면 울면서
강권했음(點後 登程到十里許 路傍父老等 列立爭獻壺獎
不受則哭而強之)

2) 키워드

- 무기 : 살대(箭竹), 장편죽, 편전, 철전, 화전, 피령전, 후전, 후
시, 흑각궁, 화피궁(벗나무 껍질), 활집
- 돛베
- 해산물 : 미역, 물고기, 피라미(鯨魚), 절인 물고기(鮑魚), 벤댕
이(蘇魚), 청어(碧魚), 알젓(鹽卵)
- 농산물 : 꿀, 유자, 칩, 띠, 둔조, 소금, 염장, 종자콩, 삼마, 염
장, 둔전
- 음식 : 쇠고기 음식(桃林), 술, 술병, 추로(秋露), 소주, 꿀통,
떡, 상화(床花)

3) 활용 방안

- 무기
 - 무기별 제조 장인 발굴
 - 무기별 제작 체험장 건립
 - 원형 복원품과 모형을 기념품으로 판매

- 지역별 재료와 고유 무늬를 이용한 지역별 상품 개발
- 육지와 해상에서 활쓰기 체험장 운영
- 이순신 해상(혹은 선상) 궁술 대회 개최
- 돛베
 - 거북선, 판옥선, 해전도, 이순신과 그 가족 등의 이미지를 무늬화
 - 돛베 재질의 천으로 손수건, 보자기, 의복, 모자, 우산, 가방, 스카프 등 상품 개발
- 해산물
 - 국난극복 해산물로 브랜드화
 - 선정된 산지의 관광지화
 - 해당 어종별 도내 경진대회 : 최고 상품에 이순신 상표의 1년간 사용 권한 부여
 - 해당 물고기 잡기 체험
- 농산물
 - 국난극복 농산물로 브랜드화
 - 선정된 산지의 관광지화
 - 해당 품목별 도내 경진대회 : 최고 상품에 이순신 상표의 1년간 사용 권한 부여
 - 대표적인 염전과 둔전의 복원
 - 염전과 둔전의 생산물 브랜드화
 - 염전과 둔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음식
 - 술병의 개발 및 상품화
 - 술(소주, 추로)과 떡(상화)의 개발 및 상품화
 - 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개발 및 상품화

- 상기 해산물과 농산물로 만든 음식 개발

8. 의료

1) 근거

- 93. 5/18 : 온백원 4알을 먹음(吞溫白元四丸)
- 94. 4/7 : 침 16군데를 맞음(受針十六處)
- 96. 4/19 : 습열로 인해 침을 20여군데나 맞았더니 속에서 번열이 나는 것 같아 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음(以濕熱受針二十餘處 氣似煩熱 終日入房不出)

2) 키워드 : 온백원, 침

3) 활용 방안

- 온백원을 브랜드 의약품으로 개발 및 상품화
- 이순신상표 침 개발 및 상품화
- 소화기질환 치료용 침술 개발 및 상품화
- 수근 장출과 의·승병 치료약과 치료술 개발 및 상품화

VI. 결론

이순신 유관자원은 전라도에 아주 많으며, 이는 이순신 유관지역의 절반 이상이 전라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자원들은 선양사업은 물론 이순신관련 사업을 하려 할 때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순신 선양사업이나 현창사업은 복원, 건립, 건조 등과 같은 유형물 사업에 치우쳐 왔으며, 특히 광복 이후에는 연구와 교육사

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차치하면, 이순신관련 자원은 전국적으로 많으며, 전라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자원의 활용이나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원 개발 때 소홀히 한 점들이 눈에 띄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자원의 관리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이순신 관련 사업에서 우리는 무어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떤 틀에 매여 있거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순신 관련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 활용 방안의 몇 가지 실례를 제시하였다.¹³⁾

마지막으로 이순신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려 한다. 첫째, 외국의 순례길 표시가 곳곳에 있듯이, 이순신 유관 지역과 유형물마다 표시석과 안내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복원, 건립, 개발 등이 완료된 사항, 장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운영과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민간인이나 업체에 위탁하거나 경제논리만 내세우면 품질이 떨어져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넷째, 활용방안을 8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했는데, 이 8가지 중 여러 가지를 함께 이용한 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순신과 그 가족, 휘하 장병, 함선, 해전도, 수군진영, 유관지역 등의 이미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유 무늬와 디자인을 개발하며, 이 무늬와 디자인이 적용된 문방구, 장난감, 의류, 생활도구, 장식품 등을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이 모든 것을 유관지역에 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13) 본고에서 제시하는 활용 방안은 필자의 개략적인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언한다.

야 한다. 일곱째, 개발된 상품은 특히 출원 그리고 판매 기법의 특화와 고급화로 호기심과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순신의 위상에 걸맞는 관련자원과 상품 및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지속관인 관심과 지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인 것으로 생각된다,